

2020년 미국 경제·무역·정치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분석



Global Market Report

목 차

요 약 / 1

I. 2020년 미국 경제 · 무역 환경 전망 / 3

1. 미국 경제 현황 및 전망
2. 미국 통상환경 전망

II. 미국 대선 및 의회 환경 전망 / 8

1. 미국 대선 관전 포인트
2. 의회지형 전망 및 차기 주요 입법 현안
3. 대선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변화 전망

III.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 분석 / 12

1. 관리무역 시대 도래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2. 기존 GVC 체제의 급격한 재편 진행
 3. GVC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4. 기타 기회요인
-

요 약

□ 미국 경제 · 무역 현황 및 전망

- (경제) '19년 3차례 기준금리 인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USMCA 타결을 통해 불확실성 제거에 성공, 지속 제기되던 '20년 불황돌입 우려 불식
 - 작년 경제 성장률 2.2% 최장 연속(126개월) 성장 유력, '20년 2.0% 성장 전망
 - 11월 예상 밖 고용 증대(26만 명), 실업률 3.5%로 50년 내 최저
 - 투자·수출증진으로 '19년 제조업생산 3.9% 성장 전망
 - '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후 '19년까지 상품 수출 8.0% 증가(1-10월)
 - * 동 기간 동안 수입도 8.7% 증가하여, 무역적자는 10.0% 확대
 - 유류 및 식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는 '19년 1.5%, '20년 1.9%로 전망, 연준 정책 목표 2%에 미달되어 '20년 추가 금리인하 여력 제공
- (통상) 미중 1단계 무역합의, USMCA 타결 등으로 통상 환경 불안이 일부 완화됐으나, EU와의 갈등,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등 불확실성 상존
 -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업계 전반은 안도하는 분위기나, 중국의 대미 수입확대의 비현실성과 근본적인 개혁 없는 합의로 평가절하 중
 - (USMCA) USMCA는 신통상규범 수립을 위해 디지털무역, 노동, 환경, 반부패, 환율 등 신설조항 추가, 기존 무역협정의 현대화 추구
 - * 강화된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은 자유로운 무역·투자를 제한, 오히려 미국 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 제기
 - (수입규제) '20년 미국의 타깃은 EU에 집중될 전망(농산물, 자동차, 항공기 보조금 분쟁, 디지털 세금 등 분쟁 심화)
 -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 WTO 중재안이 제안되고 있으나, 미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불신이 깊어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 장기화 전망

□ 미국 대선 및 의회 환경 전망

- (탄핵) 작년 12.18일, 하원에서 가결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올 1월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 '20년 대선 손익 분석 치열
- (경쟁후보) 올해 2월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일정 개시, 7.13-16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 결정

- (주요 격전지) 4대 ‘스윙 스테이트’가 ’20년 대선의 향배 좌우 예정
- (의회선거) 상·하원 모두 현재 공화당, 민주당 다수당의 점유 가능성 유력
- (대선 후 정책변화 전망) 트럼프 재선 시 추가 감세, 재정지출 및 통화 확대, 관리무역, 대중견제 지속, 국제기구 개혁 등 지속 추진 전망

□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 분석

- 관리무역 시대 도래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 ’16년을 기점으로 미국發 자국우선주의 관리무역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이, 지난 70년 동안 존속한 자유무역 체제 위협
 - IMF는 G2간 관리무역이 가져올 국제무역 시장 왜곡 현상 경고
- 기존 GVC 체제의 급격한 재편 진행
 - 급변하는 GVC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의 GVC 참여 모델을 선진화 하고, 제조-서비스 결합을 통한 기술 고도화 전략 추진 필요
 - 향후 가치사슬 활용의 성패를 좌우할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서비스가 결합하는 고부가가치 수출모델 개발 시급
- GVC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 GVC 내 제조업 고도화와 혁신 추진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급선무
 - USMCA 타결 등에 따라 북미 밸류체인은 확대 고착될 전망.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USMCA에 기반을 둔 현지화 전략 모색 절실
 - 미중 양강 또는 승자독식 구도로 고착될 4차 산업혁명 GVC에서 ‘린치핀(linchpin)’으로서의 우리 산업의 전략적 포석을 고심할 시점
- 기타 기회요인
 - 미중 1단계 합의에도, ’18년 개시됐던 대중 관세 대부분은 유효 → 대미 중간재 수출에서 대중 우위 기회 유지
 - 인프라 투자법안 통과 지연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호황은 진행 중. 주·지방 정부 프로젝트 우선 공략 필요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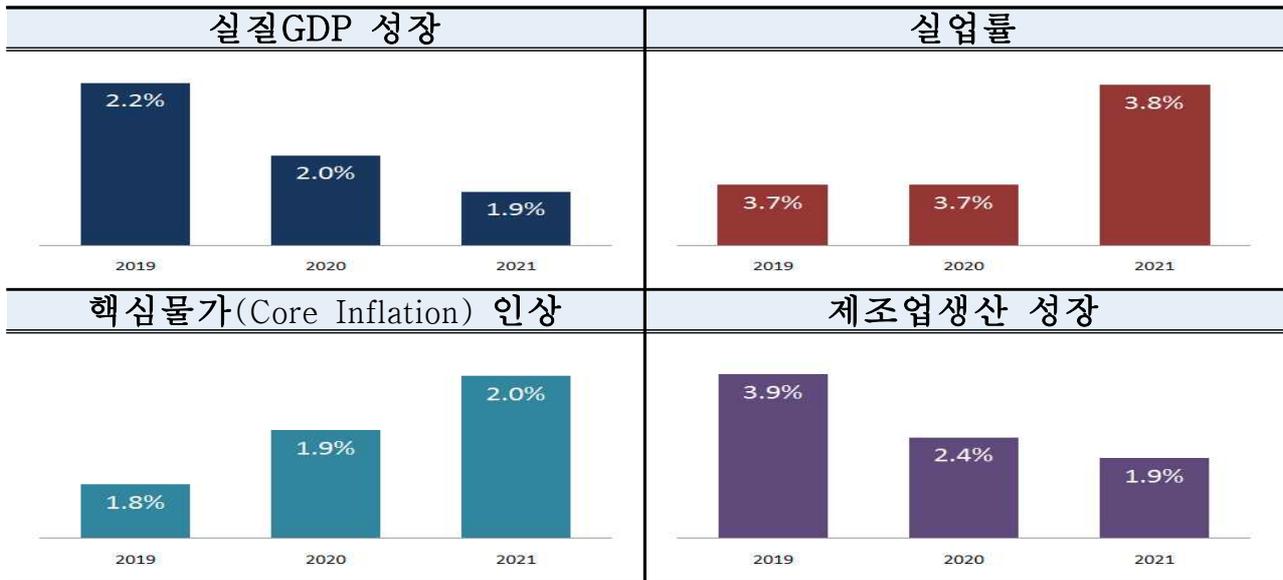
2020년 미국 경제 · 무역 환경 전망

1

미국 경제 현황 및 전망

- (평가) '19년 3차례 기준금리 인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USMCA 타결을 통해 불확실성 제거에 성공, 지속 제기되던 '20년 불황돌입 우려 불식
 - 작년 8월까지 전문가들은 12개월 내 불황 돌입 확률을 50% 이상으로 예측했으나, 12월에는 25%로 가능성 하향 전망(WSJ 12월 경제인설문)
- (GDP) 작년 GDP 성장률 2.2%로 최장 연속(126개월) 성장 기록 유력
 - 가계소득, 소비심리 개선이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져 올해 2.0% 성장 예상
 - * '20년 美GDP 성장 전망 : 연준(2.0%), IMF(2.1%), 모건스탠리(1.8%), 골드만삭스(2.3%)
- (고용) 11월 예상 밖 고용 증대(26만 명), 실업률 3.5%로 50년 내 최저
 - 평균임금 상승률도 12개월 평균 3.1%로 비교적 양호
- (제조업) 투자·수출증진으로 '19년 제조업생산 3.9% 성장 전망(MAPI Foundation)
 - 미중 분쟁 장기화 영향으로 지난 8월 이후 저조했던 ISM 제조업구매자 지수는 미중 1단계 협상 타결로 반등 기대
 - * ISM 제조업구매자지수 : 11월(48.1), 12개월 평균(51.8), 연중 최고(56.6), 연중 최저(47.8)
- (수출) '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후 '19년까지 상품 수출 8.0% 증가(1-10월)
 - 동 기간 동안 수입도 8.7% 증가하여, 무역적자는 10.0% 확대
 - * 美상품 무역적자 증감('17-'19년 1-10월까지) : 韓(7.6%↓), 中(4.7%↓), 日(2.1%↓), EU(23.6%↑), 캐나다(50.0%↑), 멕시코(46.3%↑)
 - ** 멕시코산 자동차, 원자재 수입 급증 / 캐나다산 에너지, 원자재, 통신장비 수입 급증
- (물가) 유류 및 식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는 '19년 1.5%, '20년 1.9%로 전망, 연준 정책 목표 2%에 미달되어 '20년 추가 금리인하 여력 제공

< 주요 미국 경제지표 전망 ('19-'21년) >



자료원 : 연방준비은행, The Balance

2 미국 통상환경 전망

① 미중 분쟁

-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로 잠정 갈등 봉합('20.1.15일 조인), 향후 핵심 쟁점 조정을 위한 2단계 합의에 난항 불가피 전망
 - 1단계 합의를 통해 중국은 수입확대, 금융시장 개방, 일부 경제 구조 개혁을 약속, 반대급부로 미국은 일부 관세 취소 및 인하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세부내용(미국 측 발표) >

일 정	현재 96페이지 분량 합의서 최종 조율 중(1.15일 워싱턴에서 조인)
수입확대	미국 농산물 수입 연 400억 달러로 확대(기존 240억 달러에 160억 추가) 2년 간 대미수입 2천 억 달러 확대(제조, 농산품, 에너지, 서비스 포함)
관세인하	▲ 12월 예정 관세(1,560억 달러) 취소 ▲ 관세(1,110억 달러) 인하(15%→7.5%) ▲ 기존 25% 관세 유지(2,500억 달러)
기술이전	중국의 기술이전 강제 요구 관행 금지 및 지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환율	금융시장 개방 및 위안화 평가절하 금지 등 세부 합의
이행/분쟁조정	중국 측의 합의 불이행 방지를 위한 강제조치(관세 복원 등) 양국은 실무/차관/장관급 단계별 분쟁해결 장치 마련

자료원 : USTR, Inside Trade

- 1단계 합의에 업계 전반은 안도하는 분위기나, 언론 및 전문가들은 대미 수입확대의 비현실성과 근본적인 개혁 없는 합의로 평가절하 중
- * 중국의 '17년 대미수입(상품·서비스)은 총 1,875억 달러, 이번 합의의 대미 수입확대 목표는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해 이행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
- 중국 측의 합의 이행 미흡 시, 상시 신규 관세 부과 및 인상이 가동 될 수 있어 양국 간 갈등 재점화 가능성 상존

< 대중 301조 관세 부과 현황 >

차 수	발효일	대상금액 (달러)	품목 수	관세율	대중 수입의존도
1차	18.7.19	340억	818개	25%	6%
2차	'18.8.23	160억	279개	25%	13%
3차	'18.9.24	2,000억	5,745개	10%→25%('19.5.10일)	20%
4차(A)	'19.9.01	1,110억	3,276개	15%→7.5%(합의 후 30일 내)	24%
4차(B)	'19.12.15(예정)	1,560억	578개	잠정취소(합의 후 30일 내)	87%

자료원 : ST&R, 미국 관보, 월스트리트저널

② USMCA 타결

- NAFTA를 대체할 새 무역협정 USMCA 타결, '20.2월 중 발효 전망
- '19.12.10일,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대표가 USMCA 수정안에 전격 합의
- 미 상·하원 통과 및 트럼프 대통령 서명('20.1.29일) 완료

< USMCA 체결 진행경과 >



- USMCA는 신통상규범 수립을 위해 디지털무역, 노동, 환경, 반부패, 환율 등 신설조항 추가, 기존 무역협정의 현대화 추구
- 국제무역위원회(ITC)는 USMCA 체결로 발생할 미국 내 경제효과를 예상보다 미미한 GDP 0.35% 제고, 고용 17만 명 확대로 분석
 - * USMCA 체결로 캐나다·멕시코와 교역은 약 5% 증가, 그 외 국가와 교역은 변화가 없어 북미 공급망이 더욱 공고화되는 효과 예상
 - ** '19.10월 기준 멕시코·캐나다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교역국 지위 차지
- 반면, 강화된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은 자유로운 무역·투자를 제한, 오히려 미국 내 산업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피터슨연구소, 12월)

< USMC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여파 >

분야	내용	기대효과	수혜/피해
자동차	▶역내가치비율 인상(62.5%→75%) ▶노동가치비율 제도 도입 * 시급16달러이상 지역 생산비중(40-45%) 의무	▶북미 자동차 VC 공고화 ▶멕시코→미국 공장이전	(▲)GM, Ford 등 (▼)토요타 등
농업	▶캐나다 낙농제품 시장개방 ▶유전자 조작 작물 수출협력 확대	▶미국 농식품 수출 확대 (연 22억 달러) ▶중국산 농산물 수출 견제	(▲)美낙농축산 업계 (▼)中농산 수출
제조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북미산 비중 70% 규정 ▶섬유·의류/가전/화학 등 제조업 전반에서 역내 원산지 규정 강화	▶북미 제조업 VC 공고화 ▶232조 철강관세 및 보복 취하	(▲)알코아 등 美철강·섬유·가전 업계 (▼)여타국 제조업
제약	▶생물의약품 정보보호 기간연장 불발	▶생물의약품 특허독점 제한 ▶바이오복제약 진입장벽 완화	(▲)복제약 제조사 (▼)특허보유 대형 제약사
기술	▶국경 간 자유로운 정보 이전보장 ▶데이터현지화/소스코드공개 요구금지	▶북미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교류협력 강화	(▲)아마존 등 인터넷 플랫폼, 금융서비스업

자료원 : USTR, ITC, 월스트리트저널 등

③ 수입규제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부여된 무역구제 권한을 외교, 안보, 이민, 기술, 환율 등 전 방위 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대상국을 압박하는 전략 지속
 - 국가안보 232조(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301조(대중, 대EU, 대프랑스) 관세를 부과 및 추진함으로써 해당국과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이용

- 미일 합의, 미중 1단계 합의, USMCA가 일단락된 시점에서 '20년 미국의 타깃은 EU에 집중될 전망(농산물, 자동차, 항공기 보조금 분쟁, 디지털 세금 등)
- 美의회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회가 표결로 관세 심의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다수 법안 상정 중

< 트럼프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 현황 >

근거법	규제대상	진행경과
무역법('74) 201조	태양광 모듈	4년간 30% 관세(매년 4% 감소)
	가정용 세탁기	3년간 저율관세할당제 최대 50% 관세(매년 5% 감소)
무역확장법('62) 232조	철강·알루미늄	철강 : 25%(한국, 수출쿼터 수용으로 면제) 알루미늄 : 10%
	우라늄	조사 완료, 대통령 무조치 결정
	티타늄 스폰지	조사 완료, 결정 예정('20.2.27)
	자동차·부품	조사 완료, 결정 보류
무역법('74) 301조	중국	3,610억 달러 수입에 7.5-25% 관세
	EU 에어버스 보조금	대EU 수입 750억 달러에 25% 관세
	프랑스 디지털서비스 세금	프랑스 세법에 대응 301조 조사 진행
국제비상무역수권법('77) 관세특혜 폐지	멕시코 불법이민 통제 인도, 터키 등	멕시코 전 수입품에 관세계획 철회 특정국에 대한 개도국 관세특혜제도 폐지

자료원 : 미국의회조사처

4]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

-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지속 저지함에 따라, '19.12.11일부로 WTO 상소기구의 기능 사실상 정지(위원 최소 정족 수 3인에 미달)
 - 미국은 상소기구의 기능(기술적, 제도적)에 대해 문제제기, WTO 개혁이 선결되지 않는 한 신규 위원 임명 부동의 입장 고수
- 상소기구 기능정지와 무관하게 패널심(1심) 개시 및 진행은 가능하나, 새로운 상소심(2심)은 개시 불가(1심 패소국의 의도적 상소로 판정지연 소지)
 - EU, 캐나다 등이 주도하는 개선안이 제안되고 있으나, 미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불신이 깊어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 장기화 전망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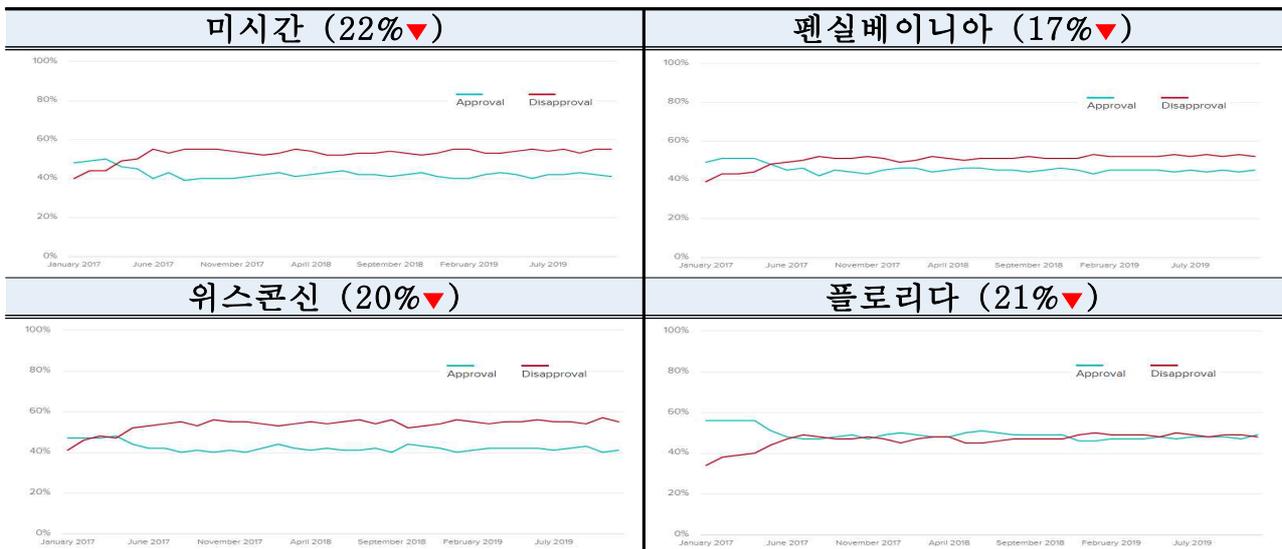
미국 대선 및 의회 환경 전망

1

미국 대선 관전 포인트

- (탄핵) 작년 12.18일, 하원에서 가결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월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 '20년 대선 손익 분석 치열
 - 권력남용 및 의회방해 혐의가 적용된 탄핵소추 최종 가결을 위해서 상원 다수당 공화당 의원의 대거 이탈 없이는 불가능
 - * 상원 100석 중 탄핵판결 요구 2/3 찬성(67표) 확보 위해 공화의원 최소 20명 이탈 필요
 - 상원 공판에서 핵심관계자의 증언, TV 생중계에 따른 대중여론 변화가 중대 변수로 작용 가능(공판 절차 및 증인채택 등은 상원에서 결정)
 - 탄핵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탄핵 정국 속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과 민주당의 여당 책임론이 통할 것이라는 전망 교차
 - * '19.12.19일 기준 탄핵 찬반은 47.5 : 46.3으로 스캔들 직후(50.2 : 43.8) 보다 찬반 간극 축소
- (주요 격전지) 4대 '스윙 스테이트'가 '20년 대선의 향배 좌우 예정
 - 대통령 선거인단(538인) 과반 270표 확보를 위해서는 ▲미시간(16) ▲펜실베이니아(20) ▲위스콘신(10) ▲플로리다(29)의 승리가 관건
 - 4대 격전지에서 트럼프 지지율 20% 하락(취임 직후 대비), 재선에 경고음

< 4대 스윙 스테이트 트럼프 지지율 추이(취임직전/현재) >



자료원 : Morning Consult

- (경쟁후보) 올해 2월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일정 개시, 7.13-16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 결정
 - 15명 후보 각축 중, 바이든(28%), 샌더스(21%), 워렌(18%), 부티저지(9%) 이상 4명의 후보가 지지율 상위권 형성(NBC/WSJ 조사 12.14-17일)
 - * 뒤늦게 경선에 참여한 마이크 블룸버그 후보의 지지율은 아직까지 저조(7%, 5위)
 - 경선 초반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상황으로 3.3일 14개 주 경선이 동시 열리는 '슈퍼 화요일'에서 대선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
 - 트럼프와 가상대결에서 상위권 후보 모두 지지율 우위(Fox News, 12.15일)

< 트럼프와 민주당 주요 후보 간 가상 지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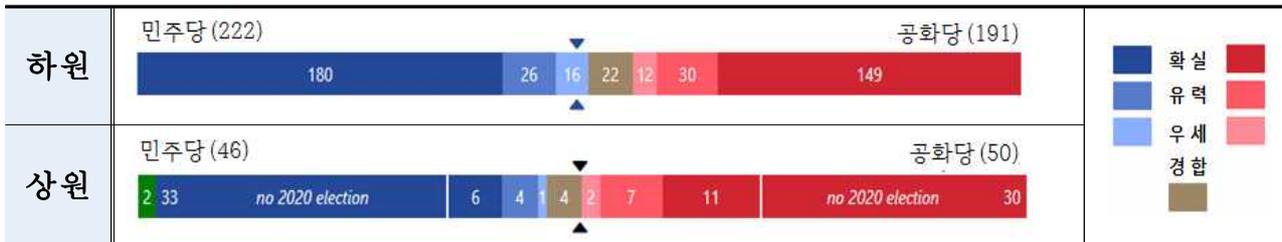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p>48 : 41 (바이든 +7)</p> <p>77세(1942년생) 미국 부통령(2009-2017) 미국 연방상원의원(1973-2009)</p>	 <p>49 : 43 (샌더스 +6)</p> <p>78세(1941년생) 미국 연방상원의원(2009-현) 2016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p>
엘리자베스 워렌	피트 부티저지
 <p>46 : 45 (워렌 +1)</p> <p>70세(1949년생) 미국 연방상원의원(2013-현)</p>	 <p>43 : 42 (부티저지 +1)</p> <p>37세(1982년생) 인디애나 주 사우스밴드 시장(2012-현)</p>

자료원 : Fox News 조사('19.12.15)

2 | 의회지형 전망 및 차기 주요 입법 현안

- (하원) 전국 435개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117대 연방 하원선거에서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이 무난히 수성에 성공할 전망
 - '19.12월 현재 민주우세 222석, 공화우세 191석, 경합이 20석으로 분석되며, 경합지역에서 민주당이 전패하더라도 다수당 지위 유지
- (상원) 전체 의석의 약 1/3에 해당하는 35석 선거 실시 예정. 현재 상원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 유지 유력
 - 35석 중 경합분류 지역 4곳에서 공화당이 모두 패배하더라도 공화·민주 의석(친민주성향 무소속 2석 포함)은 동률
 - * 공화·민주 의석 동석일 경우 상원 본회의 의장격인 부통령에게 캐스팅보트

< '20년 미국 연방 하원과 상원 지형 전망 >



자료원 : 270 to Win

- '20년 주요 입법 현안
 - 11월 대선과 의회선거를 앞두고 상하원을 양분하고 있는 여야가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Tax Cut 2.0) 중산층 소득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감세법안이 계류 중이나, 선거를 앞두고 감세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
 - (대통령 무역권한 견제 vs. 확대) 현재 대통령이 보유한 232조(국가안보) 관세부과 권한을 의회를 통해 견제하는 법안과 대통령의 재량을 보다 확대하는 법안이 충돌 중
 - (인프라 투자) 양당 모두 인프라 투자확대에는 합의하고 있으나, 재원 조달 방식 및 규제완화 등에 이견, 대선에서 치열한 공방 예상

3 대선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변화 전망

- (트럼프 재선 시) 추가 감세, 재정지출 및 통화 확대, 관리무역, 대중 견제정책 지속, 국제기구 개혁 등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
 - 대내적으로 ‘세계개혁 2.0’을 통해 ▲중산층 감세 ▲국방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연준 금리인하 압박 등으로 대대적 경기부양 시도
 - 대외적으로 ▲관리무역 체제 고수 ▲추가협상으로 중국 경제개방 압력 ▲WTO 및 IMF 등 국제기구 제도 개편을 통해 미국 일방주의 관철 노력
- (정권교체 시) 현재 민주당 후보들의 경제정책 스펙트럼이 넓어, 7월 대선후보 결정 후 발표될 ‘정당 강령(Party Platform)’에 주목할 필요
 - 샌더스, 워렌와 같은 비전통적 진보주의와 바이든, 블룸버그와 같은 제도권 중도 보수 성향, 부티저지의 중도 개혁성향이 공약 경쟁 중

<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간 정책 스펙트럼 비교 >

이념 스펙트럼		진보					보수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피트 부티저지	조 바이든	마이클 블룸버그	
경제	월가개혁	찬성	찬성	-	미온	미온	
	부유세	찬성	찬성	찬성	미온	반대	
	상속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미온	
	USMCA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찬성	
교육	최저임금인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기본소득	찬성	부분찬성	부분찬성	반대	반대	
복지	공립대 무료화	찬성	찬성	부분찬성	부분찬성	-	
	학자금대출 구제	찬성	찬성	부분찬성	부분찬성	-	
	민간보험폐지	찬성	찬성	반대	반대	반대	
국방외교	이란협정 복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대중 관세	찬성	찬성	찬성	반대	-	
	대북 협상	찬성	찬성	찬성	미온	-	
	국방비 감축	찬성	찬성	찬성	반대	-	
환경	그린뉴딜	찬성	찬성	찬성	부분찬성	반대	
	파리기후협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자료원 : Foreign Policy, Wikipedia, 뉴욕타임즈 등

III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 분석

1

관리무역 시대 도래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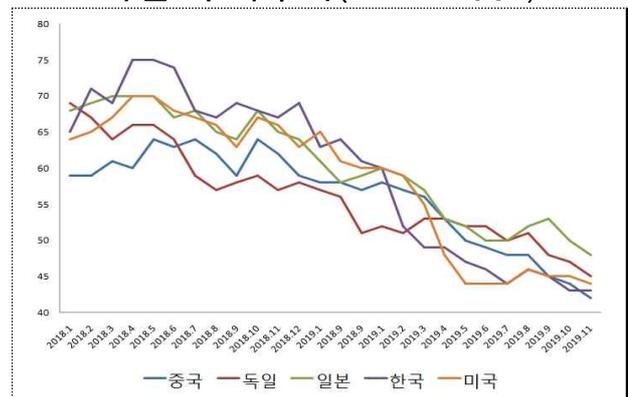
- '16년을 기점으로 미국發 자국우선주의 관리무역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이, 지난 70년 동안 존속한 자유무역 체제 위협
 - 관리무역으로 전환은 국제 무역량 감소뿐만 아니라, 산업생산 저하로 이어져 향후 글로벌 경제성장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고착

< 국제 무역/산업생산 성장률 증감 >



자료원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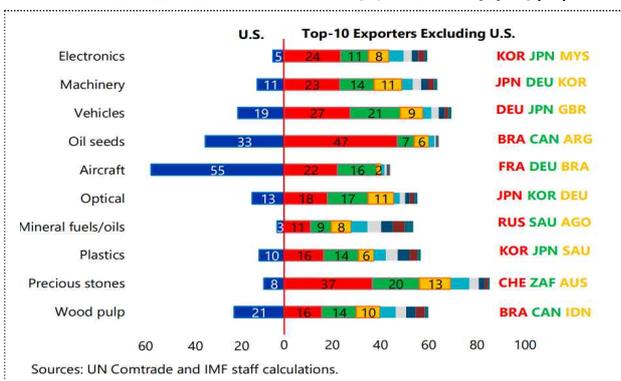
< 국별 무역추이(DHL Index) >



자료원 : DHL (50≥확장, 50=안정, 50≤수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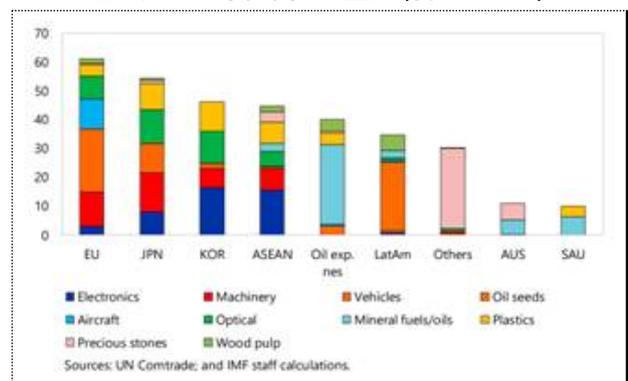
- IMF는 ‘관리무역: 미중 무역합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전망’ 보고서에서 G2간 관리무역이 가져올 국제무역 시장 왜곡 경고
 - 중국이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대미 수입(상위 10개 품목)을 확대 시, 대EU 수입(61억 달러), 대일 수입(54억 달러), 대한 수입(46억 달러) 감소 전망

< '17년 중국의 대미 수입 10개 품목(%) >



자료원 : IMF

< 중국의 수입 감소 효과(십억 달러) >



자료원 : IMF

2 | 기존 GVC 체제의 급격한 재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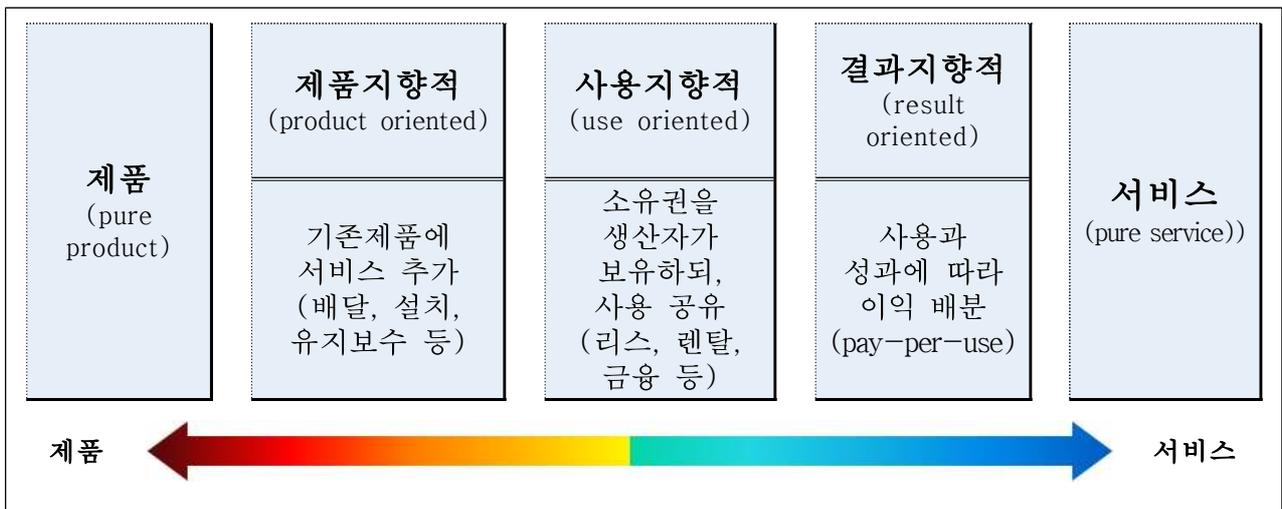
- '19.1월 글로벌 경영컨설팅사 맥킨지(McKinsey)는 '95-'17년 동안 글로벌 43개국, 23개 산업의 국제 분업 체계를 분석, 다음의 결론을 도출
 - (1)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GVC)에서 상품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감소
 - * GVC를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출 비중이 28.1%('07년) → 22.5%('17년)로 축소
 - (2) 서비스 교역의 급성장세과 서비스를 통한 GVC 부가가치 제고에 주목
 - * GVC 내 서비스 교역('07-'17년)은 상품 교역에 비해 60배 이상 빠르게 성장
 - (3) 기술발전, 통신·운송비 인하, 지역 간 임금격차 감소 등으로 GVC가 종전 저임금 인센티브형에서 지식집약형 모델로 진화 중
 - (4) '13년을 기점으로 GVC의 '지역 블록화'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
 - *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EU 28개국, 북미지역 이상 3대 권역으로 GVC 공고화
- 급변하는 GVC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의 GVC 참여 모델을 선진화 하고, 제조-서비스 결합을 통한 가치사슬 고도화 전략 추진 필요
 - 우리 GVC 포지션 전략을 가치사슬 최상단(산업전문성을 확보한 혁신활동) 진입에 맞추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방참여도 제고에 노력 필요
 - * GVC 참여도에서 전방참여도는 총수출 대비 수출에 사용된 투입재의 부가가치를 의미. 산업전문성과 혁신 비중이 높을수록 전방참여도가 높은 추세(미·일·독 등 선진국)
 - 향후 가치사슬 활용의 성과를 좌우할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서비스가 결합하는 고부가가치 수출모델 개발 시급
 - * 우리 제조업 수출에서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25.3% 불과(OECD 회원국은 25-45% 수준)

3 GVC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1 '프로덕트'에서 '솔루션'으로 :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

- GVC 내 제조업 고도화와 혁신 추진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급선무
-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 제품을 확장하거나 타산업과 융합 등을 통해 신규 서비스 창출 또는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 확산
 - 제조기업들은 '제품'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수익창출 모델 제시, ICT 기술과 융복합으로 혁신성장 추진

< 제조업 서비스화 분류 >



자료원 : IITP

- 4차 산업혁명, ICT 기술발전과 산업간 융복합 등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선택이 아닌 제조업 혁신 성장의 필수 조건
- 하지만 우리 제조기업은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 수준에 그쳐 향후 R&D, 생산, 판매, 사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 서비스 융합 절실
 - * 제조업의 서비스생산유발계수(산업연구원) : 韓(0.23), 佛(0.52), 美(0.41), 獨(0.40), 日(0.40)

② 밸류체인 지역 블록화에 따른 북미 RVC 편입 전략 시급

- USMCA 타결 등에 따라 북미지역 밸류체인은 확대 고착될 전망. 우리기업 GVC 진입에 주목할 변수로 작용
- 자동차·부품, 철강, 태양광, 가전, 제약 등 대미 수출확대를 위해 USMCA에 기반을 둔 현지화 전략 모색 절실
 - * (예) 트럼프, 국내 약가인하를 위해 캐나다 의약품 수입허가 계획 공개 → 북미 외 글로벌 공급체계 변화 예상 → 글로벌 제약사들은 캐나다 생산 확대 계획

③ 미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GVC 안착을 위한 선제 노력 시급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향후 GVC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선 방위적 노력이 미중 양국 간 기술패권 경쟁 양상으로 노골화
- 미국의 견제에 봉착한 중국은 반도체, 항공, 제약 등 전통적 지식집약 산업 외에, 5G, AI, 자율주행차 등 혁신분야 밸류체인 내재화에 총력
- 미중 양강 또는 승자독식 구도로 고착될 4차 산업혁명 GVC에서 ‘린치핀(linchpin)’으로서의 우리 산업의 전략적 포석을 고심할 시점

4 기타 기회요인

- (한중 경합 틈새시장) 미중 1단계 합의에도, '18년 개시됐던 대중 관세 대부분은 유효 → 대미 중간재 수출에서 대중 우위 기회 유지
 - '19년 동안 가전, 섬유, 플라스틱·고무,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에서 미국시장 내 중국산 수입 비중↓, 한국산 비중↑
 - 지속적인 틈새기회 발굴을 통해 대미 수출확대의 모멘텀 유지 필요

- (인프라 투자확대) 인프라 투자법안 통과 지연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호황은 진행 중. 주·지방 정부 프로젝트 우선 공략 필요
 - 미국 인프라 투자의 75%가 주정부 재정을 통해 이뤄지며, 지난 해부터 주·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의 성장세 뚜렷
 - ▲주정부의 재정 건전성 향상 ▲금융 비용 인하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으로 미국 인프라시장 확대는 기정 사실

[끝]

작 성 자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통상지원팀 김미옥
- 통상지원팀 이주미

Global Market Report 20-001

2020년 미국 경제·무역·정치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분석

-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20년 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통상지원팀
(02-3460-7513)
I S B N | 979-11-6490-260-6
(9532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